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아레오파고의 성 디오니시오스 주교순교자

루가 제2주일

성 끼리아코스 수사, 성 페드로니아 순교자

제6조, 조과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수도자 찬양송 / 85. B 267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고린토 후 4,6-15 / 봉독서 248

· 복음경: 루가 6,31-36 / 122. B 64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아테네의 주교순교자 아레오파고의 성 디오니시오스

우리 교회는 10월 3일에 아테네의 첫 번째 주교인 아레오파고의 성 디오니시오스 주교순교자를 축일로 기념합니다.

사도 바울로가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파고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 디오니시오스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바울로 편이 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니시오를 비롯하여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 밖에도 몇 사람이 더 있었다.”(사도행전 17:34) 성 디오니시오

스는 매우 명석한 머리를 가졌고 용감하였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를 조롱하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환경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웠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드러내놓고 밝히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 디오니시오스처럼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침묵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잘 들어라. 심판 날이 오면 자기가 지껄인 터무니없는 말을 낱알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마태오 12:3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원로수도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유익하지 않은 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원로수도자는 “어떤 대화라도 세속적인 것은 유익하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구원을 위한 대화는 유익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는 “물론 말을 하십시오. 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 것이나, 뭐든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라고 충고합니다. 말의 고귀한 규칙과 기준을 생각할 때, 성 그레고리오스의 이 충고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많은 고통이 생겨납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상처를 만듭니다. 모든 종류의 죄를 잉태하고 낳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말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침묵을 지켰다면 실수와 문제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혜도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영원한 본보기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고발하고 사로잡은 대사제들 앞에서 재판받을 때 변론 대신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마태오 26:63) 주님은 침묵으로 가장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

우 우리의 혀는 수다에, 거짓말에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모님도 우리에게 침묵으로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침묵은 모든 덕이 만발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서를 읽어 보면,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예가 아주 드뭅니다. 주님의 탄생부터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예수님의 경이로운 삶의 여정을 침묵으로 따르셨습니다. 성모님의 위대함은 루카 복음사가의 몇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하였다.”(루카 2:51)

소통매체의 놀랍고도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더욱 급속하게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수다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환경에서 침묵은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침묵하지만 생각으로는 수다를 떠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에 집중하여 성찰하고 진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례하고도 이기적인 침묵, 소통의 단절 방식으로서의 침묵도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가장 좋은 침묵은 기도입니다. ‘골방’(마태오 6:6)의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하느님 앞에 있게 되고 하느님의 창조되지 않은 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이 침묵이 가장 창조적인 침묵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신성한 침묵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교회가 되라!

교회는 건물 이상의 것이다. 교회는 사람이고,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며,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기도로써 하느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지닌 사람들이다.

교회는 정교 신앙과 하느님의 계명, 질서 있는 위계 구조, 그리고 거룩한 신비의 성사들로 연합되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일치를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다.

어떤 이는 말했다. “교회 예배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은 하느님의 백성이 교회 문을 통해 세상 속으로 나가 교회가 되는 때이다. 우리는 단지 교회에 가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성찬예배를 통해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시고, 그런 다음 세상 속으로 나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교회가 되기 위해서이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10월 3일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

10월 3일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맞이하여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축일 예배가 거행될 것입니다. 각 지역 성당에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축일 준비를 위해 꼭 수도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9월 14일(토)에는 슬라브 교인 바울 유아가, 9월 21일(토)에는 슬라브 교인 김 마르카리타, 최 따띠안나 교우가 세례성사를 통하여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의 삶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세례를 축하합니다.

■ 가을 음식 축제

오는 10월 20일 주일 성찬예배 후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다양하고 맛있는 대표 음식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장년회 수련회

10월 11일(금) ~ 13일(일)까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장년회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예배와 기도, 식사 그리고 영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과 재밌는 오락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슬라브 교인 수련회

오는 10월 25일(금) ~ 27일(일)까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슬라브 교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예배와 기도, 식사 그리고 영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과 재밌는 오락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부인회 야유회

오는 10월 15일(화) 부인회는 인천 소래포구로 야유회를 갈 예정입니다.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님과 함께 식사와 친교를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주간 예식

- . 10월 1일(화) 성모 보호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
- . 10월 3일(목)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
아테네의 주교순교자 아레오파고의 성 디오니시오스 축일
(이 날은 가평 주변모 수도원에서 오전 9시에 축일 조과
와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